



군산 중문·전주 동산 교회, 예수병원 발전기금 기탁

‘군산중문교회(김호성 담임목사), 전주동산교회(박숙희 담임목사)’가 예수병원을 찾아가 발전기금으로 상호해달라며 신중식 병원장에게 예수병원 발전기금 5백만 원과 1백만 원을 각각 지난10일 전달했다.

최근 예수병원 발전기금 후원회 지역사회의 폭넓은 후원인들이 동참해 예수병원의 발전을 돕고 있으며, 예수병원 발전기금은 진료와 교육 환경 개선 연구 기금, 불우 환자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김호성 담임목사는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하며 전주 예수병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후원했다. 예수병원의 의료선교와 복음사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숙희 담임목사는 “124년간 변함없이 지역사회에 의료를 통한 봉사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예수병원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변모하는 예수병원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며 적은 금액이지만 정성을 담아 전한다”며 전달했다.

신중식 병원장은 “예수병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소중한 발전기금을 후원해 주신 군산 중문 교회와 전주 동산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감사했다.

도시민들의 아름다운 후원은 예수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고창경찰 모양지구대 4조 2교대 시범운영 시행

고창경찰서(서장 고영원)는 민생현장 치안력 강화와 경찰관들의 격무해소를 위해 11일부터 모양지구대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4조2교대 근무제는 지구대·파출소 근무 인력을 4개 조로 나눠 순환하면서 2개 조가 각각 주간과 야간 근무를 하는 체제이다.

기존 3조2교대 근무제는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인해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위험성이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경찰청과 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살경찰관 130명 중 40%(52명)가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 직원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과로사로 순직된 직원이 가장 많은 5개 기관 가운데 경찰관이 47명으로 1위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경찰, 무진장여객 안전 의식 감사장 전달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는 지난 10일 진안군민 교통안전 의식 고취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 무진장여객 자동차주식회사에 직접 감사장을 전달했다.

무진장여객은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지역을 연고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회사로 3개 군을 주로 운행하면서 각 중심지인 진안, 장수, 무주를 연결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현오 서장은 “무진장여객 자동차주식회사에서 진안군민들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진안경찰서와 함께 유기적 협력으로 진안군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산 백광산업, 크린홈세트 2100세트 기탁

군산시는 11일 (주)백광산업(대표 김성훈)이 행복나눔 크린홈세트 2100세트(5313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행복나눔 크린홈세트는 트래킹, 곰팡이제거제, 락스, 락스세제, 섬유유연제, 산소폭파제 각 1개씩, 총 6종으로 구성됐으며 기탁된 성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장영수 부시장은 “전달된 성품이 이웃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추운 겨울도 건강히 지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실천한 백광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인사

전주시청 ○5급(시무관) 승진 ▲교보안전과 박희영 ▲감사담당관 정혜운 ▲농식품산업과 반연아 ▲문화정책과 최미영 ▲청년정책과 신영순 ▲세정과 채규성 ▲산림공원과 임충환 ▲도시정비과 임정민 ▲정보화정책과 김태완

새해 안전최우선 경영실천 ‘다짐’

LH전북지사,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특별안전점검 시행

윤우준 LH전북지사장은 동절기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경영의지 전파 및 재해를 감소를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11일 시행했다.

그 동안 LH전북지사는 LH 내 최초 스마트 안전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공사장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체 개발한 건설현장 일일안전점검 APP을 운영하는 등 더욱 촘촘한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힘써왔다.



고도화와 안전의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

이에따라 윤 전북지사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적용, 안전점검 APP 고도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안전문화활동’ 등 다양한 2023 안전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밝혔다.

윤우준 지사장은 “안전관리 시스템

정읍시, 설 명절맞이 이웃사랑 기부 물결 이어져

설 명절을 앞두고 정읍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각계각층의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정읍시 소재 일광새(주지 승천 스님)와 신도들이 새해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 정읍시에 300만원 상당의 백미 100포를 전달했다.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의 고충이 늘어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십시일반 모은 불자들의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설 명절을 조금이나마 풍성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받은 백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성동·내장상동·시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공유냉장고에 기탁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예정이다. 같은 날 아름다운가게 수성점 운영자문위원장 박승술은 60만원 상당의 나눔 보따리 50박스를 전달했다. 한우와 라면, 커피, 봉투집, 삼푸, 칫솔, 이불 등 생필품과 식료품으로 알차게 구성된 나눔 보따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온정 나눔에 앞장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온정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황우상 계북면장, 주민과 함께 열린행정 실천 마을 간담회

장수군 계북면(면장 황우상)은 10일부터 13일까지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을별 간담회’를 진행하여 새해 인사와 함께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10일 계북면 산촌마을, 월현마을, 매계마을, 압곡마을, 파곡마을, 읍곡마을로 시작해 13일까지 전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간담회를 진행될 예정이며, 노인, 취약계층 등 마을 곳곳을 돌며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위민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마을간담회는 올해 1월 2일 황우상 계북면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새롭게 추진할 면정 방향을 공유하고 관내 마을별 주요 건의사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면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행정 구현의 일환인 ‘찾아가는 계북면사무소’를 운영하는 셈이다. 계북면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신속한 개선대책과 방안을 제시하고 면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 금산면, 완도 금일읍 가뭄 극복 생수 전달

김제시 금산면(면장 서효연)은 11일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함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도시 완도군 금일읍에 생수를 전달했다.

50년 민의 최악의 가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자매도시 완도군 금일읍 주민들의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듣고 금산면을 중심으로 관내 기관사회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5톤 트럭 2대 분량에 해당하는 2.생수 8352개를 구매하여 금일읍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서효연 금산면장은 “금일읍은 특히 섬 지역이라 가뭄으로 피해가 크다는 소식에 하루빨리 가뭄이 해소되길 바라며, 금산면 기관사회단체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금일읍 주민분들의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평화동 주민자치위, 사랑의 백미 40포 기탁

중화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중화산동주민센터를 11일 방문해 관내 소외계층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사용하라며 100만 원 상당 백미 10kg 40포를 기탁했다.

기탁된 백미는 관내 겨울철 생계곤란 위기가구 등 4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운영지 중화산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겨울을 맞아 힘들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은례 중화산동장은 “매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중화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 담아 정성 다한 전달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임실군의회, 강서구 결연 도시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지난 10일 서울시 강서구 자매결연 도시를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제 홍보에 앞장섰다.

임실군의회는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시 강서구에서 열리는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방문하여 임실군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관측에 나선 농가를 격려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며 도민, 출향인, 자매결연 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성재 의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내 고향 임실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완산소방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중앙상가를 방문한 김장수 완산소방서장은 매일 볼때 주수요일 ‘안전하기 좋은 날(Day)’ 캠페인을 11일 진행했다.

‘안전하기 좋은 날’ 행사는 겨울철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화재 사고를 차단하고 시장·화체취약시설의 관계인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완산소방서·노후19안전센터 직원이 명절기간 화기취급이 빈번하고,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캠페인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 △자율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배부 및 지도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 당부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 안전사용 캠페인 △주방화재용(K급)소화기 비치 안내 △보이는 소화기 정비, 소화기 사용법 교육 △고압집 주택용소방시설 자동화소화기 효과하기 캠페인 등도 함께 마련해 진행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을 구하는 안전캠페인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평화동모닝마트, 설명절 맞이 라면 100박스 기탁

완산구 평화동 정영철 굿모닝마트대표가 이영애 평화동 주민센터동장을 찾아 250만 원 상당의 라면 100박스를 전달하며 관내 주민들 향한 마음의 소리까지도 지난 10일 함께 전달했다.

이번 라면 100박스 전달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절차를 통해 관내 홀로라이선,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평화동모닝마트는 지역 상권과 연계해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지역의 향토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매년 명절마다 정기적인 물품을 기부하며 수익의 일부를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환원하는 등 지속적인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마트다.

정영철 평화동모닝마트 대표는 “설명절을 맞아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을 보살피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애 평화동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관내에서 사업체 운영과 지속적인 후원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후원해주신 물품은 후원자의 마음을 담아 명절 전에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